

[6 차시] 성과 사랑

[학습내용 -1] 성에 관한 성과학적 담론들

성과학은 섹스에 대한 전통적인 무지와 불안이 표현되는 방식에 전환을 가져왔다.

섹스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성과학은

첫째, 감정이나 욕망보다는 보다 쉽게 관찰되고, 분류되고, 측정될 수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고. 둘째, 주관성과 도덕적 판단을 거부하고, 규제가 아니라 탐구에 전념하였으며. 셋째, 전문화된 지식체계의 확립과 성장은 지식관리자라는 새로운 전문가집단 즉 성과학자들을 양성하였다.

처음 19세기에 성과학자들은 질병학에 초점을 맞추어 정상과 비정상의 변수들을 확립하려는 어느 정도 단편적이고 특이한 시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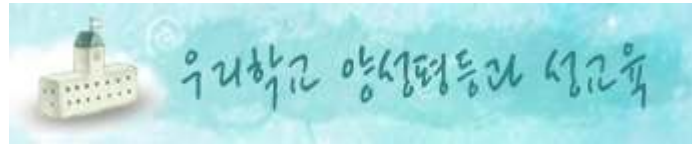
그러나 20세기 초반부터 성과학은 점차 정상적인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관찰하고 분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제 2세대 성과학자들은 성적 정숙주의와 순결주의의 그릇된 편견들과 행위들을 타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과학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훈육적 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 즉 권력/ 지식의 축이 구성되는 세 단계 즉 분류화, 관찰, 규범적 판단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점점 세속화되는 서구 자본주의 세계에서 과학의 객관성에 입각한 탐구과정은 성직자나 신들을 제외하고는 필적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지위를 부여 받았고, 도덕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성과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1) 킨제이(Alfred Kinsey)는 ‘남성의 성행동(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1948)’과 ‘여성의 성행동’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1953)에 관한 보고서에서.

(1) 성에 접근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섹스는 사랑, 이성애적 매력,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섹스는 섹스로서 생리적인 것으로 접근되는 과학적 대상이다. 즉 성에 대해 객관적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남성과 여성은 성적으로 다르지 않다. 오르가즘을 성적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오르가즘은 남성과 여성에게 본질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자위나 레즈비언의 성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오르가즘을 여성성의 중요



[6 차시] 성과 사랑

한 증거로 보면서 남성의 노력에 의해서만 그 성취여부가 달려있고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을 미성숙이나 일탈로 간주하는 프로이드류의 정신분석학적 이론과는 배치된다.

2) 마스터스와 존슨(William Masters and Virginia Johnson)

인간의 몸 특히 여성의 몸을 공식적인 성 담론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여성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킨다. 보고서는 오르가슴에 대한 여성의 능력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중심은 클리토리스에 있음을 즉 음핵오르가슴을 주장한다.

여성의 성은 미성숙한 음핵의 섹슈얼리티에서 정상적이고 성숙한 질 섹슈얼리티로 발전하며 질오르가슴만이 여성의 성공적인 성으로 간주하는 프로이트의 질오르가슴에 반대한다.

(1) 여성의 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 즉 여성의 성을 수동적으로 남성의 성적 능동성에 대해 보완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에 대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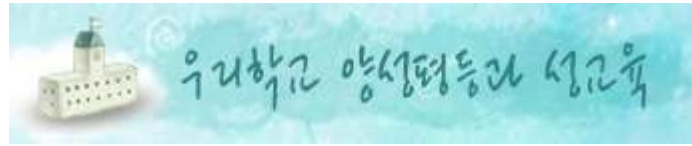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남성 성기에 의한 질오르가슴은 여성이 쾌락을 느끼는데 보조적 역할수행의 상징이며 남성의 성에 대한 종속의 증거이다. 섹스는 무력함과 수동성의 표식이며 남성사랑의 확실성에 의해 구원되는 종속의 행위로 간주해왔다.

(2) 섹스에 부과된 기존의 의미를 벗겨내었다.

연구의 결과보다는 결과를 생산해낸 방식 즉 700여명의 자원자의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의 과정을 추적했는데 직접 실험실에서 이성애, 성교, 자위행위 등을 행하게 하고 이들의 생식기의 반응, 몸의 움직임, 피부 반응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교가 실험실에서 기록되고 기계와 연결되어 연구자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 간에 혹은 사람과 진동기(vibrator)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주었다.

(3)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여러 번의 오르가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성애적 관계보다 자위에서 오르가슴을 더 느낌을 입증했다. 여성의 성을 남성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성과 이성애적 질서에 위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질 성교가 없는 동성애의 성교를 병리적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주장에 반대하고 이성애의 성교야말로 여성의 질에서의 남성의 자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메인 그리어, Germain Greer)

3) 하이트 (Shere Hite)



[6 차시] 성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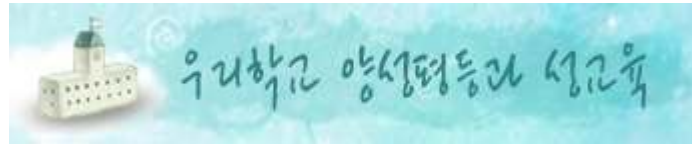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1976년의 하이트보고서에 의하면 불감증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여성들의 느낌과 행동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성보고서에 의해 성의학이 갖는 남성중심성을 폭로하고 만족스런 섹스는 여성의 권리라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했다. 이는 테크닉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은 스스로 오르가슴에 도달 할 수 있다. 만약 남성과 성관계를 한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오르가슴이 있는 성을 요구해야 한다. 오르가슴에 부과된 가부장적 환상을 벗겨내고 침실에서 교섭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고양시켰다.

[학습내용 -2] 페미니즘과 여성의 성

1. 급진적 페미니즘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 인 것이다.’ 라는 구호는 가사에서 성과 자녀 양육에 이르는 일상적인 사적인 경험의 영역에 정치적인 행동이 개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여성해방운동은 특히 성 해방운동이다. 질과 남근중심의 성, 남성상위의 성교를 넘어서서 음핵섹스, 자위, 오럴섹스, 레스비언 섹스, 음핵자극들을 돕는 다양한 성교 위치 등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온 성적 행위들을 포용해야 한다.

2. 이러한 성해방에 대한 반대하는 페미니즘들의 담론도 있다. 섹스에 대한 페미니즘의 강조는 여성의 사회적인 자기발전과 정치적인 의식화 정치참여를 지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적 차원의 오르가슴이나 성적 자유는 사회적 평등보다 더 성취하기 쉬운 의제이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여성해방을 이룰 수가 없다. 여성해방은 곧 성해방이라는 등식을 문제 삼는다.

3. 1970년대 후반에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자유가 자신의 섹스만 제공하는 익명적인 여성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성적인 쾌락을 같이 했던 남성이 성폭력을 가할지도 모르고 여성의 일상적인 안녕에 대해 무관심한, 아직은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이 어떤 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남성에게 혜택과 이득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발견한다. 에리카 종은 1980년대 헌신 없는 섹스를 부정하며 여성은 섹스가 아니라 사랑이나 관계를 원한다는 주장으로 종래의 입장을 수정한다.



[6 차시] 성과 사랑

[학습내용 -3] 여성의 재생산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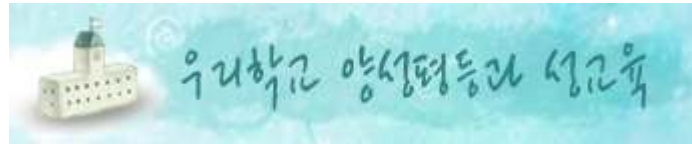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한 즉 재생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는 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한국여성의 임신중절문제, 저출산율문제는 언제나 남성적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왔다. 연 34만 2233건(2005년)에 달해 같은 해에 태어난 신생아수 43만 8062명의 78%에 달하는 낙태율, 세계최저수준인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은 언제나 여성의 개입 없이 여성을 대상화해서 정책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임신중절권 투쟁의 생명존중 vs 선택존중의 논쟁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획득의 문제였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임신중절권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재생산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973년에 대법원은 임신중절을 합법화시키는 판결, 즉 로우 vs 웨이드 사건()으로 알려진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국인의 사생활권리(헌법 제14조)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정부가 임신중절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결정은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즉, 안전한 임신중절 기술을 통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사생활권리를 인정하며 인간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신기간을 세 기간으로 구분해 임신초기 13주까지의 임신중절은 절대적으로 여성과 의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여성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임신중기 14~24주의 임신중절은 여성의 안전한 의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법이 임신중절 절차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여성의 건강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임신말기 24주 이후 즉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시기에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을 금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태아의 권리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여성은 임신초기와 임신중기에 임신중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 임신말기에도 이론적으로는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보다는 시민의 사생활권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임신중절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서로 별개이면서 대립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이후 생명존중 vs 선택존중 입장간의 대립을 낳게 했다. 생명존중진영이 임신중절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선택존중진영은 임신중절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간주함으로써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임신중절이 여성의 재생산권일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생명존중진영이 임신중절은 태아살인이라 하지만 배후의 의도는 여성의 성을 규제하고 여성을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생명존중진영은 임신중절의 도덕성을 들고 나온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의무의 윤리에 기반하여 임신중절은 이기적인 도시중산층 젊은이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



[6 차시] 성과 사랑

해서 죄 없는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점차 여론의 호응을 얻자 선택중절진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그에 따른 성의 자유라는 주장에서 물러나 여성의 임신중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 강간의 결과 때문이라고 반박 혹은 변명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여성, 페미니즘, 성, 임신과 분리되어 논의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의 급진성이 사라지고, 1980년대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임신중절의 문제를 전담하게 된다. 여성운동은 임신중절문제를 더 이상 여성권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규정한다. 이제 임신중절의 문제는 여성문제가 아니라 태아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도덕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논의의 와중에서 임신한 여성의 현실적인 문제는 실종된다.

참고문헌

게일 혹스지음, 임인숙옮김, 섹슈얼리티와 사회, 일신사, 2005

조은, 조주현, 김은실, 성해방과 성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